

여성의 근로소득이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신 나 래, 이 영 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가정폭력은 여성과 가족의 삶을 뒤흔들고, 나아가 사회적 안녕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을 설명하는 자원이론과 결혼의존이론이 한국적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취업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이 과정을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가 매개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2015년도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65세 미만의 기혼여성과 배우자 2,355쌍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취업을 통한 여성의 소득비중의 증가는 가정폭력 피해를 높이는 직접효과를 보였으며,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를 통한 유의미한 간접효과 역시 확인되었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수록 가정폭력 또한 증가할 수 있다는 자원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취업과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가정폭력, 여성의 근로소득, 배우자만족도, 자원이론, 결혼의존이론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영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E-mail : yslee@inu.ac.kr

■ 최초투고일 : 2016년 11월 30일 ■ 심사마감일 : 2017년 1월 9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1월 15일

1. 서 론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남성일인생계부양자 모델이 더 이상 효율적인 가족형태가 아닌 현실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여성에게 있어 취업은 단순히 소득의 향상을 통한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자원과 네트워크의 형성, 자존감의 향상과 우울감의 감소 등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향상시키는 수단적·정서적 이로움을 가져온다(Macmillan & Gartner, 1999; Gibson-Davis, 2005). 한편, 여성의 취업은 남성 배우자와의 관계 형성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며 임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평등하고 독립적인 부부관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하는 반면, 남성배우자가 정서적, 신체적 폭력 등을 통해 여성의 취업과 노동을 방해하기도 한다(Moe & Bell, 2004).

여성의 취업과 이를 통한 근로소득, 가정폭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일치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원이론(resource theory)의 경우, 생계부양자가 되는 것은 남성이 가정 내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므로, 이를 상실할 경우 관계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남성이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커질 것이라고 설명한다(Basile, et al., 2013; Villarreal, 2007). 반면, 결혼의존이론(marital dependency theory)에 따르면 여성의 낮은 경제적 지위, 저임금 등은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 및 결혼 자체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켜 가정폭력 피해를 높일 수도 있다(Dobash & Dobash, 1979; Tauchen & Witte, 1995; Kaukinen, 2004).

이렇듯 여성의 취업 및 근로소득과 가정폭력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이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실증적 연구의 결과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내에

서는 여성의 취업 등 경제활동참여와 가정폭력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취업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가정폭력 경험의 관계에 대하여 상반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연구들도 다수이다(Macmillan & Gartner, 1999; Kaukinen, 2004; Villarreal, 2007; Aizer, 2010; Anderberg, et al., 2015).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가정폭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Yvas & Watt(2009)에 따르면, 5개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가 가정폭력 피해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반면, 다른 6개의 연구에서는 이를 부적적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여성의 취업과 이를 통한 경제적 지위 향상은 가정폭력 경험에 어떠한 방향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

특히, 여성의 취업, 경제적 지위향상과 가정폭력 발생 간의 관계는 젠더 관계를 바라보는 문화적 맥락 및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Terrazas-Carrillo & McWhirter, 2015). Yvas & Watts(2009)의 연구에 따르면, 저개발국가와 선진국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응책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여성의 노동 경험은 이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개발국가들 내에서도 여성의 취업 여부와 가정폭력간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Terrazas-Carrillo & McWhirter(2015)는 멕시코의 사례를 활용하며 비교문화연구(cross cultural research)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전통적인 유교 사상의 영향이 여전히 일정부분 존재하며, 노동시장의 성별 분업과 여성의 낮은 노동지위 현상이

뚜렷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에서 여성의 취업 및 취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가정폭력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는 여성의 근로소득, 가정폭력의 발생과 상호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먼저, 여성의 소득활동이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여성의 근로소득 향상을 통해 부부 간에 보다 평등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어 배우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Scanlon, 1982), 반면 여성의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조혜선, 2003; 강기정·박수선, 2007; 김효민·박정윤, 2012).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는 또한 가정폭력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낮은 결혼만족도는 여성배우자에 대한 폭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있다(Margolin, et al., 1998; Stith, et al., 2008; 유채영·김정득, 2009). 이상의 논의를 고려하면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가 여성의 근로소득과 가정폭력 피해경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가진다.

연구문제 1: 여성의 취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는 여성의 근로소득이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2. 이론적 배경

1) 자원이론과 결혼의존이론

여성의 취업과 이를 통한 근로소득, 가정폭력 간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자원이론은 여성의 취업과 취업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가 가정폭력 발생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자원이론에 따르면, 생계부양자가 되는 것은 남성이 가정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므로, 이를 상실할 경우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남성이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Basile, et al., 2013; Villarreal, 2007). 또한 부부간의 권력관계 발생에 있어, 전체 가계 소득보다 부부 각각의 소득 균형이 더 중요한 것으로 설명한다. 7,40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Kaukinen (2004)의 연구에서 남녀의 가계소득 기여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정서적 폭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상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여성은 남성배우자에 의한 정서적 폭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Hadi(2005)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이 전통적인 남성성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였는데, 취업 여성, 그 중에서도 화이트칼라 여성은 비취업 여성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Macmillan & Gartner(1999)는 상대적 자원이론(relative resource theory)을 바탕으로 남녀의 취업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차이가 중요했으며, 남성보다 지위가 높은 여성은 남성이 가장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정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취업, 남성 비취업인 부부

의 경우 여성은 남성배우자로부터 치명적인 폭력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자원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또한 같은 맥락에서 가정폭력이 부부 간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다(Goode, 1971; Gibson-Davis, et al., 2005). 여성의 노동과 가정폭력의 발생은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여성이 노동을 통해 소득을 획득하면 이로 인해 가정 내 지위가 향상되며, 생계부양자로서의 경제적·상징적 통제를 상실한 남성은 지위의 회복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Goode(1971)는 사회교환이론을 통해 가족관계를 설명하며, 가족은 권력이 작용하는 하나의 장이며, 직업과 교육, 소득수준 등이 낮은 남성의 경우, 자신의 가족 내 낮은 지위를 상쇄하기 위해 여성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자원의 권력을 획득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폭력은 가족 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작용하므로, 특히 빈곤한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Dobash & Dobash(1979) 역시 여성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남성의 임금과 가계부양은 남성성을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물이며, 여성의 노동은 이러한 남성성에 대한 위협으로 비춰져, 남성은 이에 폭력적으로 응답한다고 보았다.

물론 부부관계의 모든 것을 자원의 소유로 설명하거나, 모든 남성이 가장 혹은 가정 내 결정권자가 되고 싶어한다는 전제에 대해 비판하는 연구들도 있으며, 소득은 그 자체의 물리적 의미보다는 관계에서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는 설명도 제시되었다(Anderson, 1997).

이와는 반대로 결혼의존이론은 여성이 취업하거나 여성의 소득이 증가하면 남성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에 희생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설명한다(Dobash & Dobash, 1979; Tauchen & Witte,

1995; Kaukinen, 2004). Kaukinen(2004)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성배우자의 임금이 필요하며, 이는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야기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렇듯 남성이 고임금 직위를 차지하는 사회적 구조는 부부와 가족 관계에도 반영되어, 남성이 가족 내 가장으로서 높은 자리를 갖도록 만든다. 결혼의존이론은 부부 관계에서 여성이 교육, 직업, 소득과 관련하여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가사와 돌봄에 대한 책임감으로 귀결, 궁극적으로 여성이 결혼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야기된다고 설명한다(Tauchen & Witte, 1995; Kaukinen, 2004). 즉,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남성배우자에게 더 의존적인 여성일수록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자원이 평등한 부부에 비해, 경제적으로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여성일수록 폭력적인 관계를 떠나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며(Dobash & Dobash, 1979; Kaukinen, 2004), 경제학적 관점으로 가정폭력을 분석한 결과 역시 여성의 경제적 자원이 커질수록 여성은 관계에서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거나 혹은 떠남을 통해 자신이 폭력에 노출될 확률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Tauchen & Witte, 1995).

같은 맥락에서 협상이론(bargaining theory)은 가족 내에서 자원의 획득을 위해 남성과 여성 부부 간에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는지를 설명한다(Farmer & Tiefenthaler, 1997; Gibson-Davis, et al., 2005).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된 여성은 남성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 좀 더 나은 위치에서 협상 카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여성의 자원에 대한 남성배우자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폭력적인 배우자를 떠날 수도 있다. 실제로 Aizer(2010)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취업을

통해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수록 가정 내 여성을 향한 폭력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Xie,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고 여성의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정폭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성의 근로소득,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와 가정폭력

배우자 만족도란 배우자에게 갖는 기대의 수준과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는 정도에 대한 총체적인 고려이다. 보통 배우자 만족도는 부부관계 만족도,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에게 만족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결혼만족도의 개념과 혼용되기도 하며(모선희, 1997; 문정화·김미혜, 2015), 결혼만족도가 배우자만족과 생활만족의 하위변인으로 나뉘어 측정된다는 측면에서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김효민·박정운, 2012). 일반적으로 결혼만족도는 가정 내 주관적인 행복감으로 측정되지만, 남성의 경우 결혼만족도는 주로 배우자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Lavner & Bradbury, 2010). 보통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남편이 부인에 비해 높은 배우자 만족도를 보고하고 있다(문정화·김미혜, 2015).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절에서는 배우자 만족도와 결혼 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포함하였다.

자원이론을 통한 결혼만족도의 분석에 따르면, 가족 내 개인이 어떠한 자원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결혼만족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조혜선, 2003). 여기서 자원은 교육, 수입, 직업안정성, 가족 내 의사결정 능력, 개인의 매력도, 성생활 능력 등을 포함하며, 이 중에서 경제적 자원은 개인적 차이를 구성하

는 핵심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조혜선, 2003).

하지만 여성의 취업, 근로 소득과 배우자 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일관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여성의 취업과 남성배우자의 만족도에 관한 Scanzoni(1982)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해 자원동원 능력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자원 평등을 달성한 부부는 서로 비슷한 수준의 권력을 행사하며, 그렇지 못한 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배우자 만족도를 보인다.

반대로 여성 배우자가 맞벌이를 할 경우에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심층적 분석을 시도한 김효민·박정운(2012)의 연구에 따르면, 맞벌이를 통한 소득증가로 전반적인 결혼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은 검증되지 않았으며, 조혜선(2003)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경제적 자원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성배우자가 취업을 한 경우, 남성배우자에게 돌봄과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부담이 지워지며 이 때문에 결혼 및 배우자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강기정·박수선, 2007).

배우자 만족도와 가정폭력의 연관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들 간의 부적 상관관계를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Margolin, et al., 1998; Stith, et al., 2008; 유채영·김정득, 2009). 결혼만족도와 가정폭력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32개의 선행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Stith, et al.(2008)의 연구에 의하면, 설명력 크기의 차이는 있었으나, 남성배우자의 낮은 결혼만족도는 가정폭력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낮은 결혼만족도는 가정폭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위험요인(risk factor) 중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채영·김정득(2009)의 연구에서도 남성의 결혼만족

도가 낮을수록 여성배우자를 향한 신체적·심리적 폭력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었다. 175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Margolin, et al.(1998)의 연구에 따르면, 낮은 결혼만족도는 신체적·심리적 학대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중요 변수 중 하나이고, 남성의 낮은 결혼만족도와 음주문제가 결합되어 더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정서적 학대에서는 집단 간의 결혼만족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심각한 신체적 학대의 경우 학대 남성집단은 그렇지 않은 남성집단에 비해 낮은 결혼만족도를 보였다.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와 가정폭력의 인과관계를 다른 방향에서 설명한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증가하여 가정폭력 발생이 감소한 결과,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상승하기도 하였으며(최선희·장신재, 2002), 가정폭력 부부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부부 미술치료 실시한 결과, 결혼만족도의 상승을 이끌기도 하였다(최윤숙·김갑숙, 2010). 또한 부부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었으며(신나래, 2015),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의 발생을 낮게 신고하였다(곽병선, 2011).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5년 한국복지패널 10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 제주도를 포함한 9개도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시되는 종단조사이며, 도시지역 및 농어촌 지역이 모두 표본에 포함되어 전국적 대표성이 높은 패널자료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0차년도 자료의 전체 응답자 중 65세 미만의 기혼여성과 배우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근로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65세 미만의 기혼여성과 그 배우자는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연구 목적에 따라 독립변수, 매개변수 및 통제변수로 남성 배우자와 관련된 변수들을 포함해야하므로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를 활용하여 기혼여성과 배우자를 연결하여 배우자 관련 변수를 구성하였다. 65세 미만의 기혼여성 2,792명 중 배우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75명을 제외한 2,717명이 표본에 포함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결측치를 제외한 2,35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변수 및 측정

(1) 종속변인: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한국복지패널에서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측정하는 언어적 폭력, 폭력 위협, 직접적 폭력행사 경험의 3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언어적 폭력, 폭력 위협, 직접적 폭력행사 경험을 한 경우 1, 경험이 없는 경우 0의 이분형 변수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가정폭력 경험 문항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폭력위협, 직접적 폭력행사의 경우 경험을 한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측정한다.

(2) 독립변인: 여성의 근로소득비중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여성의 근로소득비중을 활용하였으며, 부부의 총근로소득 중 여성의 근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및 취업을 통한 경제적 지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 간의 상대적 소득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여성의 취업 여부, 소득 수준, 종사상 지위 변수 등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종속변수인 가정폭력 경험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3) 매개변인: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

선행연구들에서 결혼만족도가 주로 배우자에 대한 평가와 태도를 다루고 있지만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측정하기 위해 배우자 만족도 질문을 활용하였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1=매우 불만족 ~ 7=매우 만족),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통제변인

가정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독립변수, 매개변수 외에 가정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김재엽 외, 2010; Anderberg, et al., 2015; Kaukinen, 2004; Kwesiga, et al., 2007; Villarreal, 2007). 본 연구에서 활용된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다.

남녀 각각의 연령은 출생년도 변수를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남녀의 연령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Pearson $r > 0.9$), 남녀 각각의 연령을 모두 통제변수로 투입한 결과 두 변수 간 다중공선

성이 확인되어 여성의 연령만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교육수준은 19개 범주로 나누어 측정했으며, 연속변수로 처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1=무학, 2=초등재학, 3=초등중퇴, 4=초등졸업~17=대학원재학, 18=대학원수료, 19=대학원졸업). 성역할 인식은 성역할 인식에 대한 3개 항목 응답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의 전일근로가 가족생활을 힘들게 함”,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쁨” 등이 포함된다. 문항의 내용에 따라 역코딩 후 3개 응답 점수를 합산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인식이 평등함을 의미한다. 문제음주수준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AUDIT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는데, AUDIT 척도는 지난 1년간 개인이 경험한 음주의 빈도와 양, 알코올 의존증세, 음주와 관련된 문제의 3개 영역에서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0개 문항의 값을 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음주의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구소득은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OECD 방식의 가구균등화소득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높은 왜도(skewness)를 보여 자연로그를 활용하여 변환하였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총자산에는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이 포함되며, 총부채에는 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 외상 및 미리 탄 갯돈 등이 포함된다. 자산 변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높은 왜도, 음수값 등 분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쌍곡사인(inverse hyperbolic sine)을 활용하여 변환하였다(Friedline, Masa, & Chowa, 2015). 자녀 여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측정하였다. 거주지역은 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하는 대도시, 중소도시, 지방의 군

지역 범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의 근로소득 비중이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임을 고려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에 대해 승산비(odds ratio)를 추가적으로 계산하여 분석 결과를 해석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하기 위해 Wald χ^2 검증, Hosmer-Lemeshow 검증, c 통계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2인 이상의 기혼 여성이 한 가구에 속해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기혼 어머니와 기혼의 딸이 각각 배우자와 함께 같은 가구에 속한 경우 등이다. 같은 가구에 속한 연구대상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 표준오차가 과소 추정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하여 표준오차를 추정하였다(Wooldridge, 2002). 또한 모든 분석은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가중치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매개효과의 추정을 위해 Baron & Kenny(1986)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Baron & Kenny에 따르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하는데,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하며, 2)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하며, 3) 독

립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한다. 매개변수를 통제한 이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약화되면 부분매개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Baron & Kenny의 매개효과 검증 방법은 분석의 편의성 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Sobel 검증이 많이 활용되는데(Mackinnon, et al., 2002), Sobel 검증은 정규 분포의 가정이 충족되어야 하고 검정력이 다소 낮은 등의 한계를 갖는다. Hayes(2009)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신뢰구간을 계산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aron & Kenny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한 후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4.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표 1>에 제시되었다. 여성이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494명(21.0%)이 ‘그렇다’, 1,861명(79.0%)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가구 근로소득 중 여성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로그를 활용하여 변환된 가구소득은 평균 7.89 수준이었으며, 역쌍곡사인을 활용하여 변환된 자산 수준은 평균 10.03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대

상자 중 96%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거주 지역으로는 43.6%가 대도시, 41.7%가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녀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연령은 평균 50.85세, 여성 연령은 평균 47.49세였으며, 교육수준은 남성의 평균이 11.42, 여성평균이 10.83으로 남성의 평균적 교육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355)

변수		빈도(%) / 평균(표준편차)
종속 변수	배우자 폭력 경험 예	494 (21.0)
	아니오	1,861 (79.0)
독립 변수	가구소득 중 여성의 근로소득 비중	.26 (.27)
	가구균등화소득(로그)	7.89 (.64)
매개 변수	순자산(역쌍곡사인변환)	10.03 (3.14)
	자녀	있음 2,261 (96.0) 없음 94 (4.0)
통제 변수	거주지역	대도시 1,027 (43.6) 중소도시 983 (41.7) 군지역 345 (14.7)
	남성 연령	50.85 (10.10)
통제 변수	남성 교육수준	11.42 (3.97)
	남성 성역할 인식	10.34 (2.26)
통제 변수	남성 문제음주 수준	6.73 (6.11)
	남성 배우자 만족도	5.60 (1.03)
통제 변수	여성 연령	47.49 (9.38)
	여성 교육수준	10.83 (3.79)
통제 변수	여성 성역할 인식	10.20 (2.18)
	여성 문제음주 수준	1.51 (2.83)

2) 여성의 근로소득 비중이 가정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여성의 근로소득 비중이 가정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분석모형의 적합성을 살

펴보면, 우선 유의미한 Wald χ^2 검증 결과는 연구 모형이 적합함을 의미하며, 모형의 설명력은 11%였다 (Pseudo- $R^2=.1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Hosmer-Lemeshow 검증 결과는 모형의 적합도가 다소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하나, ROC 곡선을 이용하여 계산한 c통계는 0.71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여성의 근로소득 비중이 높을수록 배우자에 의한 폭력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졌으며 (b=.67, p<.01), 여성의 근로소득 비중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가정폭력을 경험할 확률은 9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dds ratio=1.95).

<표 2>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N=2,355)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Odds Ratio)
독립 변수	가구소득 중 본인소득비중	.67(.25)**	1.95
	가구균등화소득(자연로그)	-.06(.11)	.94
통제 변수	가구자산(역쌍곡사인)	.001(.02)	1.00
	자녀(무=0)	.39(.35)	1.48
통제 변수	거주지역(군지역=0)	대도시 -.04(.22) 중소도시 -.13(.22)	.96 .88
	여성 연령	-.02(.01)*	.98
통제 변수	여성 교육수준	.04(.03)	1.04
	여성 성역할 인식	-.03(.04)	.97
통제 변수	여성 문제음주 수준	.05(.02)*	1.05
	남성 교육수준	-.05(.02)*	.95
통제 변수	남성 성역할 인식	.04(.04)	1.04
	남성 문제음주수준	.02(.01)†	1.02
통제 변수	남편 배우자 만족도	-.68(.07)***	.51
	상수항	3.12(1.14)**	22.58
통제 변수	Wald χ^2	148.41(df=14)***	
	Pseudo- R^2	.11	
통제 변수	Hosmer-Lemeshow test(df=8)	23.6**	
	c-statistic	.71	

* p<.05, ** p<.01, *** p<.001

통제변수 중 여성의 연령, 여성의 문제음주 수준, 남성의 교육수준,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가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즉,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b=-.02$, $p<.05$), 여성의 문제음주 수준이 높을수록($b=.05$, $p<.05$), 남성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b=-.05$, $p<.05$),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가 낮을수록($b=-.68$, $p<.001$) 여성이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남성 배우자 만족도의 매개효과

여성의 근로소득 비중과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관계에 있어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활용하였고, 붓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였다(Hayes, 2009).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첫 단계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었다(매개변수 제외).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여성의 근로소득 비중과 종속변수인 가정폭력 피해 경험 간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즉, 여성의 근로소득 비중이 높을수록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확률이 높아졌다.

<표 3>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매개변수 미포함, N=2,355)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Odds Ratio)
독립 변수		
가구소득 중 본인소득비중	.81(.24)**	2.26
가구균등화소득(자연로그)	-.20(.10)*	.81
가구자산(역쌍곡사인)	-.01(.02)	.99
통제 변수		
자녀(무=0)	.58(.37)	1.78
거주지역(군지역=0)		
대도시	.14(.22)	1.15
중소도시	.04(.22)	1.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Odds Ratio)
여성 연령	-.01(.01)	.98
여성 교육수준	.03(.03)	1.03
여성 성역할 인식	-.03(.04)	.97
여성 문제음주 수준	.05(.02)*	1.05
남성 교육수준	-.07(.02)**	.93
남성 성역할 인식	.04(.04)	1.04
남성 문제음주수준	.03(.01)*	1.03
상수항	.30(1.03)	1.35
Wald χ^2	51.08(df=13)	***
Pseudo-R ²	.03	
Hosmer-Lemeshow test(df=8)	7.43	
c-statistic	.61	

* $p<.05$, ** $p<.01$, *** $p<.001$

<표 4> 남성 배우자 만족도에 대한 OLS 회귀분석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독립 변수	가구소득 중 본인소득비중	-.26(.11)*
	가구균등화소득(자연로그)	.24(.05)***
	가구자산(역쌍곡사인)	.01(.01)
	자녀(무=0)	-.28(.13)*
	거주지역(군지역=0)	
	대도시	-.22(.07)**
	중소도시	-.21(.08)**
통제 변수	여성 연령	-.008(.003)*
	여성 교육수준	.01(.01)
	여성 성역할 인식	.003(.02)
	여성 문제음주수준	-.005(.01)
	남성 교육수준	.03(.01)**
	남성 성역할 인식	.001(.01)
	남성 문제음주수준	-.01(.004)*
	상수항	4.03(.43)***
	N	2,355
	F(13, 2204)	12.68***
	Adjusted R ²	.09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와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독립변수인 여성의 근로소득 비중과 매개변수인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여성의 근로소득 비중이 높을수록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 중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b=.24, p<.001$), 자녀가 없을수록($b=-.28, p<.05$), 대도시가 아닌 군지역에 거주할수록($b=-.22, p<.01$), 중소도시가 아닌 군지역에 거주할수록($b=-.21, p<.01$),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b=-.008, p<.05$), 남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b=.03, p<.01$), 남성의 문제음주수준이 낮을수록($b=-.01, p<.05$),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aron & Kenny 매개효과 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독립변수를 통제한 이후 매개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는 앞에서 제시한 <표 2>를 통해 알 수 있다. 독립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매개변수인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와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간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는데,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과 <표 2>의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매개변수인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를 통제한 이후 독립변수인 여성의 근로소득비중과 종속변수인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간의 관계가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가 여성의 근로소득비중과 가정폭력 피해경험과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Baron & Kenny의 분석방법을 통해서도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도에 대한 직접적 검증이 어렵다. 또한 정규분포의 가정과 낮은 검정력의 문제 등 Sobel 검증이 가진 단점을 극

복하기 위해 부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매개효과(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표 5>에 의하면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 모두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95%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또한 여성의 근로소득비중이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총효과 중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를 통한 간접효과의 비중은 27.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Bootstrapping을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

	coefficient	bias	bootstrap standard error	Bias-Corrected 95% C. I.
간접효과 (매개효과)	.02	-.0001	.01	.01 ~ .04
직접효과	.05	.0003	.03	.001 ~ .11
총효과	.07	.0001	.03	.02 ~ .13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여성의 근로소득 비중이 높을수록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확률이 높아지는 직접효과가 확인되었다.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의 부분 매개효과도 확인되었는데, 여성의 근로소득 비중이 높으면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가 낮아지고, 이는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확률을 높인다.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취업을 통한 여성의 근로소득이 남성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Baron & Kenny의 방법, 부스트래핑 등을 활용하여 남성 배우자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전체 여성응답자의 21%가 지난 1년간 남성배우자로부터 직접적인 언어적, 신체적 폭력, 혹은 폭력 행사의 위협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가정폭력이 일부 여성들에게 국한되는 사적 영역의 이슈가 아닌 젠더폭력으로서 사회적·제도적 관심과 개입이 필요한 공적 영역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가구 내에서 여성과 남성의 근로소득 비중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남성이 전체가구 근로소득의 74%를, 여성이 26%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의 비중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여성의 취업을 통한 근로소득 비중이 증가할수록 가정폭력 피해경험 확률이 높아지는 직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여성의 취업을 통해 전체 가구소득 중 여성의 근로소득 비중이 높아지고 가족 내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수록 남성배우자에 의한 폭력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자원이론이 설명하는 가정폭력 발생의 맥락과 방향을 같이한다(Goode, 1971; Macmillan & Gartner, 1999; Kaukinen, 2004; Gibson-Davis, et al., 2005; Villarreal, 2007). 이러한 결과는 경제학, 사회학, 여성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와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원이론이 한국적 현실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설명하는데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의 문제해결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남성의 배우자만족도가 낮을수록 가정폭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연령, 낮은 교육적 성취, 남성의 낮은 배우자 만족도 등을 통해 가정폭

력 발생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유채영·김정득, 2009; Margolin, et al., 1998; Kaukinen, 2004; Stith, et al., 2007). 가부장적인 성역할 태도 및 인식은 가정폭력의 발생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으나(김재엽 외, 2010; Kwesiga,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셋째,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 매개효과 분석에 따르면, 유의미한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여성의 근로소득비중이 높아질수록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는 낮아지고, 배우자 만족도가 낮아질수록 남성이 여성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역시 여성의 경제적 자원의 획득과 가정폭력 피해발생의 정적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일정부분 지지하였다(Margolin, et al., 1998; Kaukinen, 2004; Gibson-Davis, et al., 2005; Villarreal, 2007; Stith, et al., 2008; 유채영·김정득, 2009).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취업 및 소득과 가정폭력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 및 실증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적 자원의 획득을 통해 오히려 남성배우자로부터의 폭력에 취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더한다. 특히 한국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취업 여부, 근로소득수준 보다 상대적 측면에서의 근로소득비중이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부간 자원의 분배에 있어 절대적인 물질의 양보다 상대적인 차이가 중요한 의

미를 가지며(Macmillan & Gartner, 1999), 소득 그 자체보다 취업과 경제활동, 사회생활 참여 등이 주는 상징적 의미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Anderson, 1997).

셋째, 여성의 근로소득비중과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관계에 있어 남성 배우자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여성의 취업 및 소득이 가정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면, 취업여성, 그 중에서도 가구 내 근로소득 비중이 높은 여성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가정폭력은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젠더폭력임과 동시에, 저소득 빈곤여성은 가정폭력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실천적·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Meisel, Chandler, & Rienzi, 2003; Lindhorst, Oxford, & Gillmore, 2007; Gibson-Davis, 2005). 분명 여성의 소득은 폭력에 저항하거나, 탈폭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원이 될 수 있다(박언주·김효정, 2015). 여성에게 노동은 경제적인 안정을 넘어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노동과 이로 인한 소득의 보장은 여성에게 사회적 지위와 개인적인 성취감을 갖게 하며,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eecham, 2014). 더 나아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생활을 종결할 수 있는 선택지의 확보를 가능케 할 수 있다(박언주·김효정, 2015).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취업여성, 고소득여성들도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 가부장적인 사회와 가족 구조 하에서 오히려 여성을 가정폭력에 더욱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Terrazas-Carrillo & McWhirter(2015)는 여성

의 경제적 독립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부부와 발생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여성의 취업을 통한 경제적 독립은 가정폭력이 없는 부부에게는 여성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가정폭력이 이미 발생한 부부에게는 여성의 취약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가정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성의 근로소득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해결책으로 귀결될 것이 아니라, 여성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에 대한 남성의 인식 개선과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몇 가지 한계에 대해 언급해보면, 우선 패널자료의 특성상 가정폭력을 측정하는 문항의 수가 많지 않아 가정폭력의 형태와 강도, 빈도에 따른 정교한 분석이 어려웠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폭력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여성의 취업과 소득의 영향이 달라지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Gibson-Davis, 2005).

또한 가정폭력과 연관성이 예측되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보다 세밀하고 다차원적인 내용이 분석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여성의 취업여부와 함께 취업기간, 소득수준, 정규직 여부 등의 취업안정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낮은 취업지위에 비해 높은 취업지위를 가진 여성은 측정 불가능한 여러 부분들을 포함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에 있어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Tauchen & Witte, 1995; Kaukinen, 2004; Gibson-Davis, 2005) 다차원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이 반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의 취업지위와 소득의 향상이 부부관계와 가정폭력 발생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1970년

대부터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패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정책은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Crown, et al., 2011; Lindhorst, et al., 2007; Meisel, et al., 2003). 여성의 취업 과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그 발생의 주기가 즉각 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변화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기정 · 박수선 (2007). 국내 맞벌이 부모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부모교육연구>, 4(2), 123-143.
- 곽병선 (2011).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현황과 방지대책. <법학연구>, 2, 177-198.
- 김재엽 · 이순호 · 최지현 (2010). 남성근로자의 직장-가정갈등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359-380.
- 김효민 · 박정윤 (2012).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3), 43-68.
- 문정화 · 김미혜 (2015). 베이비부머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31(2), 105-132.
- 박연주 · 김효정 (2015).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노동경험에 관한 연구: 경제적 폭력의 경험과 탈폭력 가능성 확장의 양면적 구성. <페미니즘 연구>, 15(2), 71-106.
- 신나래 (2015). 부부갈등이 유자녀 여성의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2(50), 213-238.
- 유채영 · 김정득 (2009). 남성배우자의 부부갈등 대처전략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2), 277-310.
- 조혜선 (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 경제적 자원, 성 역할관, 관계성 모델의 비교. <한국사회학>, 37(1), 91-115.
- 최윤숙 · 김갑숙 (2010). 가정폭력 부부의 결혼만족도 증진을 위한 가족미술치료 사례 연구: 해결중심 치료를 적용하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2), 57-86.
- Aizer, A. (2010). The gender wage gap and domestic viol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100, 1847-1859.
- Anderberg, D., Rainer, H., Wadsworth, J., & Wilson, T. (2015). Unemployment and domestic violence: Theory and evidence. *The Economic Journal*, 1-3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sile, K. C., Hall, J. E., & Walters, M. L. (2013). Expanding resource theory and feminist-informed theory to explain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by court-ordered men. *Violence Against Women*, 19(7), 848-880.

- Beecham, D. (2014). An exploration of the role of employment as a coping resource for women experiencing intimate partner abuse. *Violence and Victims*, 29(4), 594-606.
- Crowne, S. S., Juon, H., Ensminger, M., Burrell, L., McFarlane, E., & Duggan, A. (2011). Concurrent and long-term impact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on employment stabil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6), 1282-1304.
- Dobash, R. E., & Dobash, R. P. (1979). *Violence against wives*. New York: Free Press.
- Frideline, T., Masa, R. d., & Chowa, G. A. (2015). Transforming wealth: Using the inverse hyperbolic sine (IHS) and splines to predict youth's math achievement. *Social Science Research*, 49, 264-289.
- Gibson-Davis, C., Magnuson, K., Gennetian, L. A., & Duncan, G. J. (2005). Employment and the risk of domestic abuse among low-income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1149-1168.
- Goode, W. J. (1971). Force and violence in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624-636.
- Hadi, A. (2005). Women's productive role and marital violence in Bangladesh. *Journal of Family Violence*, 20(3), 181-189.
- Hayes, A.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 408-420.
- Kaukinen, C. (2004). Status compatibility, physical violence, and emotional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452-471.
- Kwesiga, E., Bell, M. P., Pattie, M., & Moe, A. M. (2007). Exploring the literature on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roles, intimate partner violence, occupational status, and organizational benefi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2(3), 312-326.
- Lavner, J. A., & Bradbury, T. N. (2010). Patterns of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newlywed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 1171-1187.
- Lindhorst, T., & Gillmore, M. R. (2007). Longitudinal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employment and welfare outcom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2(7), 812-828.
- MacKinnon, D. P., Lockwood, C. M., Hoffman, J. M., West, S. G., & Sheets, V.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7, 83-104.
- Macmillan, R., & Gartner, R. (1999). When she brings home the bacon: Labor-force participation and the risk of spousal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4), 947-958.
- Margolin, G., John, R. S., & Foo, L. (1998). Interactive and unique risk factors for husbands'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of their wiv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4), 315-344.
- McFatter, R. M. (1979). The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interpreting regression equations including suppressor and enhancer variables.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3(1), 123-135.
- Meisel, J., Chandler, D., & Rienzi, B. M. (2003). Domestic violence prevalence and effects on employment in two California TANF populations. *Violence Against Women*, 9(10), 1191-1212.

- Moe, A. M., & Bell, M. P. (2004). Abject economic: The effects of bettering and violence on women's work and employability. *Violence Against Women*, 10(1), 29-55.
- Scanlon, J. (1982). *Sexual bargaining: Power politics in the American marri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ith, S. M., Green, N. M., Smith, D. B., & Ward, D. B. (2007).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discord as risk marker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 149-160.
- Tauchen, H., & Witte, A. D. (1995). The dynamics of domestic violenc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5, 414-418.
- Terrazas-Carrillo, E. C., & McWhirter, P. T. (2015). Employment status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Mexican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0(7), 1128-1152.
- Villarreal, A. (2007). Women's employment status, coercive control,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Mexico.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 418-434.
- Vyas, S., & Watts, C. (2009). How does economic empowerment affect women's risk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 of published evi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21, 577-602.
- Wooldridge, J. M. (2002). *Econom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Cambridge, MA: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Xie, M., Heimer, K., & Lauristen, J. L. (2012). Violence against women in U. S. metropolitan areas: Changes in women's status and risk, 1980-2004.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50(1), 105-143.

The Effect of Women's Earnings on Domestic Viol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Men's Spousal Satisfaction

Narae Shin, Yung Soo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plore how women's relative earnings influence the risk of domestic violence, based on the resource theory and the marital dependency theory. This study further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men's spousal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earnings and domestic violence. Findings from logistic regression and mediation analysis utilizing the 2015 Korea Welfare Panel Study (KWPS) were as follows: First, 21% of married women aged less than 65 reported that they were abused by their spouses, and women's earnings accounted for 26% of total earnings. Second, the proportion of women's earning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risk of domestic violence. Thir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men's spousal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earnings and domestic violence was also detected. Overall, these findings support the argument of the resource theory.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as well as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further discussed.

Keywords: Domestic Violence, Women's Income, Spousal Satisfaction, Resource Theory, Marital Dependency Theory